연중 제13주일
(교 황 주 일)

기도서 380 면(B해)
제1독서 : 지혜 1,13-15.2,23-24
제2독서 : 2고린 8,7.9.13-15
복 음 : 마 르 5·21-43 혹 5,21-24.35b-43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마르 5, 34).

□ 강 론

무릉도원 교회

박 창 신 신부

오늘은 교황주일이다.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심으로 사도전래와, 단일성과, 거룩함과 공번된 교회라는 큰 의미를 우리 교회가 부여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의 정통과 본질이 같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과 기쁨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의 삶을 사는 교회라야 바로 교황주일을 맞는 올바른 뜻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모든것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만이 변태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요한 3,16) 그 아들은 억압된 자를 풀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며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성전에서는 독점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울분을 터트리셨고 당신 자신을 빵으로 주시며 서로 나누도록 당신을 비우셨다(필립 2, 6-8).

그분은 세상의 역사속에서 활동하셨지만 인간 죄의 속성은 그분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세상의 죄를 멸하기 위해 어린양이 되신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일엔 관심도 없다. 세속일과 교회의 일이 따로 있으며 교회는 오직 인간의 영혼밖에 더 간여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불신이 득세하며 언어가 혼란되고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도 교회는 초연하게 **"무릉도원"** 만을 찾는다. 예수는 세상의 역사안에 사셨지만 교회는 이 역사엔 관심도 없이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목청껏 소리지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이웃을 잃었으며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던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다.

결과로 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단식과 십일조는 정성껏 바치면서도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현대판 바리사이들"**(루가 11,42)의 무리라 비난한다. 무릉도원 교회는 식민과 착취의 길을 트게하여 원주민에게 하느님을 가르쳤지만 그들을 빈손으로 만들었으며 토착문화를 미신으로 매도하여 생활공동체를 파괴시켰다. 그리고 선택된 엘리트가 되어 불의 조장자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한 패거리가 되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깊이 반성했던 것이다. 신앙과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세상과 신앙생활이 전혀 무관하여 현세 임무에 등한시하는 것을 현대의 가장 큰 오류(사목헌장 43항)라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삶을 교회 본연의 자세로 생활할때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오룡동 천주교회)

소리 40원 유감

—이러지들 맙시다.

시민 자율 버스가 등장한 첫날, 시내버스를 애용하는 서민네들 집에서는 화제가 만발했다. —"너는 어땠니?"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국민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대답은 "100원씩 주고 탔어요"다. "그래? 그러면 돌아올 차비가 모자랐을텐데…"라는 분노서린 아버지의 되물음에 한 아이는 「친구에게 빌려서」 타고 오고, 한 아이는 「걸어서」 왔다는 대답이다. —시민 자율 버스여, 어째서 그 어린아이를 걸어서 가게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되는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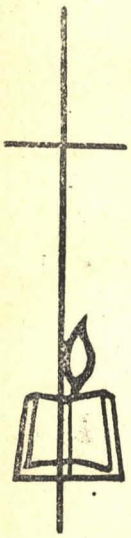
시민 자율 버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째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고 시민들의 돈을 부당하게 가로채는가? 어른들이야 시비라도 가리겠지만, 어린것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40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요금받는 통 옆에 거스름 돈을 챙길 수 있는 장치는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시민되기(만들기?) 훈련이란 말인가?

시민 자율 버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느 시민이 운전기사에게 "점심값과 담배값은 어떻게 해요?"라고 묻자, 그 기사는 "회사에서 식권을 줘요"라며 식권봉투를 보인다. 묻고 대답하는 내용에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듯도 싶다. 앞으로 안내양들은 어찌 될 것인가?

시민 자율 버스, 아직은 처음이라서 그렇겠지만, 짜증나는 것은 사실이다. 돈 40원이 커서 문제를 던지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이 무슨 대접을 받고 사는가가 답답해서 던지는 것이다. 세금내듯 내는 성금, 작년에만도 600억원이나 흑자를 낸 KBS에 내는 텔레비젼 시청료만 해도 억울한데…. 제발 민주복지국가의 시민답게 사람대접 좀 받고 살자.

숲정이 산책

성서교실 ⑱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마르 4 : 39

「잔잔해진 풍랑」(마르 4 : 36—41)은 세 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다. 마태오복음에 의하면 이것은 10기적 중 제4에 속한 것인데 전(前) 3은 병의 치유 내용이고, 이것은 학자들이 말한 소위 「자연기적」이다.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폭풍을 위시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해롭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악귀(惡鬼)의 짓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이 내용에 있어서 마태오 복음에 의하면 예수가 먼저 제자들을 꾸짖은 후에, 호수를 잠잠케 했으나, 마르코·루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가 호수를 잠잠케 한 후에,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는 판명될 수 없으나, 신앙적인 사실로서는 다 같이 의미가 깊다. 예수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신앙이 각성된 채, 「외」(外)에 폭풍이 일지라도, 「내」(心)에는 「평화」가 있게 되는 경우나 예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신앙이 생긴 경우나 다 상관이 없다.

폭풍을 무서워했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견지에서는 말이 안된다. 어린애는 어떠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 속에서 안면(安眠)한다. 참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 하여야 할 것은 죄(罪) 문제이고, 불신(不信) 문제이다. 우리는 오직 영혼 문제만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한다. 우리는 영혼의 「병」, 영혼의 사멸에 대해서만 걱정해야 한다(마태 10 : 28, I 요한 4 : 17—18). 병, 실업(失業), 폭풍, 지진, 이 모든 것은 결국 「육신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신앙을 약화시킨다. 신앙은 「비상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비상시」에 도움이 못되는 신앙이란 차라리 신앙이 없다고 하는 편이 낫다. 폭풍은 하느님의 은혜이다. 하느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수련시키신다.

청소년 특집④

※※※ 자랑스러운 후배들 ※※※

장발의 청바지, 디스코, 팝송 그리고 남녀 구별없는 미팅과 축제 등으로 상징되는 요즘의 청소년을 보면서 우리는 세태의 타락이라고 한숨을 몰아쉬곤 한다. 용기를 들고 잔인무도한 범행을 하는 소년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나라의 장래까지 암담해지는 절망을 느끼기도 한다. 어쩌다가 우리 세대에 이르러 이같은 말세적 퇴폐를 겪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당한 견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청소년은 육체적 성장에 따르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체험하는 과도기여서 어느시대에서건 기성세대의 안목에는 저항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호기심에 찬 관찰과 모험심, 감정의 순수성, 주체적 창의성, 끓어오르는 정의감과 개혁의욕과 같은 어른세대가 본받아야 할 특성을 흠뿍 지니는 시절이요 여기에 반항과 부정의 기질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청소년의 가치관은 본질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다른것이 없다. 개인생활에서 추구하는 인격적 선, 사회생활에서 구현코저 하는 정의, 그리고 예술세계에서의 심미 등, 모든 점에서 가치기준의 일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한국사회는 서구화, 도시화, 산업화 등의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고 변천된 사회를 정향지우는 도덕원리가 동요되는 위기에 놓여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중에 기성세대의 옛날을 무색하게 하는 학구열과 용기, 창의적 판단과 단호한 결행을 보이는, 심지어 한국적 주체성에 눈을 뜨는 선구자적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른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입시위주의 점수교육이 가져오는 위험을 인격교육으로 보충하는 것이 전부다. 완전한 인간,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전인교육은 부모와 스승들의 솔선수범을 향한 자기 발전의 노력을 전제하여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가림없는 대화와 접촉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기타」의 선율에 이맛살을 찌푸리는 어버이, 공부가 싫어 데모나 한다고 꾸짖는 부모, 그들의 생활을 움직이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체계를, 그 이름조차 모르는 선배들과는 대화와 교통이 성립될 수 없다.

우리 청소년의 장래는 한없는 가능성과 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려운 후배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하여 기성세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립하여 가느냐에 있는 것이다.

양 상 렬(덕진천주교회)

◦혼수(회갑)옷감
◦특수 파티복
◦고급 침구류
◦각종 솜 일체
◦커텐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오수분료 설계·시공·감리
유성정화조
f·R·P, P·E 정화조 생산판매
Water Tank 생산판매
농촌 삼조식 생산판매
전주시 전라중학교 앞
☎ 74—4880
김 세 인(이냐시오)

기미 주근깨 여드름 피부를 희고! 아름답게!
전주 시 민 약 국
☎ 4—0009 3—3338

교 구 소 식

1. 사제 평의회·참사회 :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2. 재정 참사회 :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3. 교리교사 수련회 : 7월 1일~3일, 상관천주교회 ※ 모포 꼭 지참
4. 축! "전주교구 사목공제회" 설립 : 교구 성직자 수도자 및 교구 산하기관, 제단체들의 사목활동을 지원하고 신자들의 협동활동을 더욱 육성,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신용조합이 지난 6월 12일 설립되었다
   임원진—이사(5명), 김영신 신부님(이사장), 김병운 신부님(부이사장), 범석규·강인찬·김용태 신부님, 감사(2명)—지정환 신부님(위원장)·권이복 신부님,
   연락처—가톨릭센타 사무실(☎ ⑤0041~3)
5. 특강—교육학 : 7월 6일(오후 2시~6시)~7일(오전 10시~오후 6시)
   강의—교육학 개론, 교육심리학 강사—김형호 교수·박진현 교수, 수강료—3천원
6. 대학생 성지순례 : 7월11일~14일, 노정 : 전주→어은동→한들→성지동→전주 숲정이
   접수—가톨릭센타 대학생 연합회실, 교구청 교육국(⑤0041~3)
   참가자격—모든대학생 ※ 회비와 신청서는 7월 7일까지, 회비—3,500원
7. 평협 임시총회 : 7월 14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타
   안건—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안건 토의 ※ 각본당, 교구내단체장의 참여바람
8. 하나회 작품 전시회(5월 19일)에 성원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판매금액—1,267,900원, 찬조금—143,900원
   전액을 출품자 재활을 위해 보람있게 쓰겠읍니다
   군·옥지구 하나회 예비모임—둔율동에서 오후 2시
9. 각본당 교육부장(선교부장) 및 청소년 관계자 연석회의 : 6월 30일 오후 2시~5시
   장소—가톨릭센타 교육관, 주제—청소년 대회에 관한 건
10. 특강 철학개론 : 7월 13일 오후 2시~6시, 14일 오전 10시~오후 6시
    강의—철학개론, 요한복음, 강사—김영철 교수·범선배 신부님, 회비—3천원
11.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7월 1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센타 성당

□ 축! 영명 : 성 토마스 사도축일(3일)—서용복·김정원·이재후·이종원 신부님
   성 안드레아 김대건사제 순교자축일 : 김진소 신부님 축하합니다

※ 각 본당 사무장님께 알립니다 : 본당 소식이 수요일 오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게재치 않겠읍니다

♣ 잠 깐 !

부끄러웠다.

"하느님께 드릴 돈은 깨끗해야죠" 하며 땅바닥에 동전을 문데어 번쩍거리게 하던—, 그래서 땀이 송알송알 이마에 맺혀있던 그 꼬마,

봉헌금은 교회를 위하여 기부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봉헌제물이다. 걸어오는 것 그 자체가 전례행위다. 돈 넣기 위해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치러 오는 것이니 그 행위 모습도 정성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던 과부의 한 닢, 동전스럽게 가난한 헌금이지만, 그래도 제일 깨끗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봉헌하자.

봉헌 자체가 나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바치는 행위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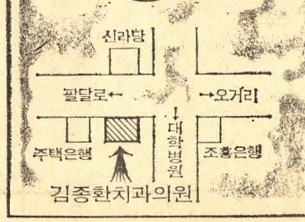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자격
   1) 여직원 : ○명
   2) 자격 : ①만18세이상 30세미만, ②고졸이상, ③주산·부기·타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제출서류
   ①자필이력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④신원증명서 1통, ⑤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통
3. 접수마감 : 85년 7월8일 16시
4.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5. 전형일자 : 85년 7월 13일
6. 접수처 : 당조합 총무과
7.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 바람

전주시 서서학동 48—6
전주 성가신용협동조합
☎ ⑥ 8123~4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③ 3668
자택 ③ 8120

비디오 촬영 전문
최신형 전자비디오 촬영기 설치
결혼·회갑·각종행사 등 혼수품, 전자제품, 염가 판매 금성·삼성·대우
백 운 전 자
☎ 3—0231
백정수(리노)·이데레사
중앙시장 입구(시민약국 앞)

김 종 환 치 과 의 원


원장 김종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옆 신라당 건너편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사무실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수녀원 〃 사도회장 이 홍 재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다음주 (7일) 오전 9시
상임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대의원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사도회 임원님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새성가 연습 : 매주일 미사전 15분간 성가연습 있음
모든 교우님들은 미사시간 15분전에 오셔서 연습에 임합시다
4. 교황주일 특별헌금 : 오늘은 전세계의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교황님을 위해 특별한 기도와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5. 국민 보건과 전 염병 예방에 관한 특강
7월 2일 어머니미사 후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6. 아파트 성당 예비자 교리시간
①직장인반—매주(수) 저녁 8시30분
②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③중·고등부—매주(토) 오후 5시(주일 교리 없음)
7. 전자을갠 기금 신입합시다 : 2구좌—김기철·김진회, 1구좌—박세옥·박계봉·김종문·이행자·이재영·김인원·박금옥·백옥님·김형인·유봉례·신임춘·박부자·유경애·김복남·박공순, 5구좌—김규례, 계—120,000원
누계—340,000원
8. 청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남·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9. 공소 순회미사 : 7월 6일 저녁 8시—신교리공소
10. 금주의 전례담당 : 제1조, 차주는 제2조가 담당

□ 지난주 봉헌금 : 400,610원 교무금 : 563,500원
신축기금 : 37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 첨례7 : 7월 6일 저녁 8시
3. 복자 부녀회 : 7월 6일 오전 10시
4. 축! 견진 : 지난주일에 102명 견진, 축하합니다
5. 반회합 : 7월 4일(저녁미사 없음) 8시
진2반—김수녀님(김안나), 진3반—신부님(양성님)
진4반—이수녀님(홍안나)
6. 교황주일 : 오늘 특별헌금 있음
7. 가정방문 : 7월 5일, 지난번 영세하신분들
8. 금주 성당청소 : 월—황금 궁전pr, 토—이땅에 빛pr
차주 성당청소 : 일—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9. 금주전례 : 해설—정운주, 독서—①천 건 ②장영자
차주전례 : 해설—김재식, 독서—①양규철 ②허정자

□ 지난주 봉헌금 : 268.710원 교무금 : 527,8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사도회 월례회 : 7월 6일 저녁미사 후
2. 구역 대의원회 : 7월 7일 공식미사 후
3. 전주교구 교리교사 : 하계 수련회를 7월 1일~7월3일까지 본당에서 개최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매주 수요일은 예비자 교리가 있읍니다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97,840원 교무금 : 10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사도회 : 7월 4일 오후 8시
2. 자모회 : 7월 2일 오전 10시30분
3. 반편성 : 12개반을 27개반으로 분반하여 새 반장님들께 오늘 10시 공식미사에 임명장 수여합니다
앞으로 수고 많으시겠읍니다
4. 성가정 신심을 위하여 :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마에 작은 십자그리기와 본명 부르기로 합시다
5. 첫 영성체 교리 시작 : 7월 9일~27일까지
국민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바랍니다
6. 축! 영명 : 박에스텔 수녀님
영육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7. 금주전례 : 해설—신영창·오정희
독서—①김낙균 ②김광수, 기도—성심회
차주전례 : 해설—김광수·김은경
독서—한상철 ②박경환, 기도—샛별pr

□ 지난주 봉헌금 : 일반—290,445원 주일학교—5,730원
중·고—8,680원 계—304,855원
교무금 : 241,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글라라 형제회 : 다음주
2. 성가정회 : 7월 1일
3. 유아세례 : 7월 6일 오전 11시
4. 전동 울뜨레아 회장 : 김경철 모이세
앞으로 수고 많으시겠읍니다
5.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업익정·노영자—각 3만원, 익명—2만원, 익명 3인—각 1만원 감사합니다
6. 다음주 봉헌담당 : 고수창 부부
7. 첫 영성체식 : 3일~5일—신부님 특별교리
6일—유아세례 및 어린이 영세식 오후 2시
7일—3시 어린이미사에 첫 영성체식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기정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태
저녁미사 : 해설—고옥희, 독서—①최종만 ②최원일
9. 주일학교 자모회 : 7월 4일 11시
주일학교 가정방문—1일~3일

□ 지난주 봉헌금 : 832,580원 교무금 : 638,000원

(효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예비신자 입교식 : 오늘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오늘 10시
성모기사회—6일 오후 1시30분
3. 주부 성서대학 : 하느님의 정의—아모스
4. 축! 결혼 : 7월 7일 12시—전동성당
신랑—이재석, 신부—김경숙
5. 교육관 건축헌금(납입자)
정원회—100만원, 정은숙·권춘희—각 30만원, 이영우·김형호·송윤자—각 20만원, 유봉옥·익명·박현석·소경섭·오호담·김정례—각 10만원, 이성렬·우기도·이기원—각 5만원, 최진수—2만원, 오복옥·김종념—각 1만5천원, 임대학·안순남·문금순·문정님·박태만·배망녀·허성화·김영근—각 1만원, 익명—5천원

□ 지난주 봉헌금 : 383,235원 교무금 : 841,000원
신축기금 : 365,000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7 4 4 0